

조원들의 이니셜을 이용해 조형물 제작

이니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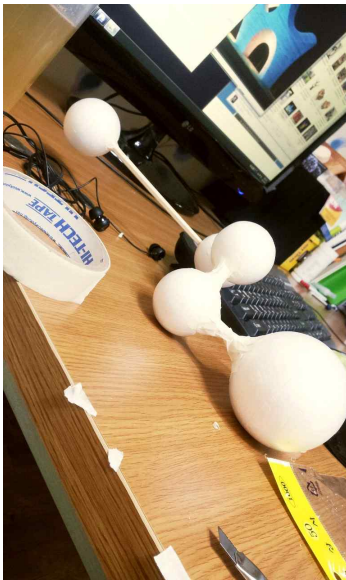
이다예 : L D Y ○ □ ○

이연정 : L Y J ○ ○ ㅈ

정우영 : J W Y ㅈ ○ ○

1차 입체 스케치

교수님과 사전에 만나 좀 더 자세한 설명과 TIP을 들은 후 1차 스케치 제작.
'○'과 'W'를 모티브로 했다.



1차 제작

- 컨펌 후 다시 재료와 형태에 대해서 고려했다.
조원의 이름에 '○'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'○'을 주체적 형태로 만들기로 했고
부수적W를 만들기로 정했다. 코일링에서 영감을 얻어 '○'을 코일링으로 제작하고 W를
종이로 제작했다.
- 비례는 좋지만 형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고 형태에 대해 다시 고민했다.
회의 후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제작했다.



실물크기 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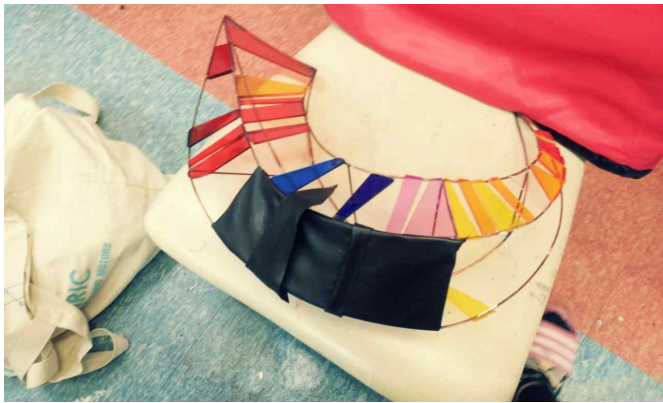
2차까지 제작했던 축소모형을 보고 fix를 받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만 우리 조같은 경우는 2차 제작한 모형이 혹평을 받았고 실물크기로 제작하지 못했다.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고민했고 그형태를 실물크기로 스케치 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실물크기를 제작했다.

이

과정에서 재료와 형태 모두 바뀌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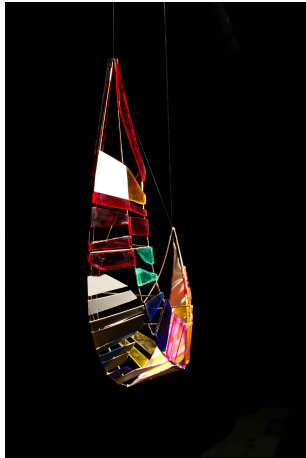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처음 쓰려고 했던 석고를 쓰지 못했고 아크릴만 쓰게 되었다.





최종작품 & 작품설명





아크릴을 잘라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붙였고 크기는 비례를 고려해서 자른 것이다.
중간에 종이 재질을 삽입했다.

전체 틀은 동선을 용접한 것이다.
'o'을 모티브로 만든 조형물이다.